

경북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산학 협력 모범 사례로

사업 성과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포항공대·대구가톨릭대 특화 교육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에 기여

경북도가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테크노파크와 참여 대학,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인력 양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포항공과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 등 거점 대학과 지역 반도체 기업이 협력해 도출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에서는 대학별 특화 교육



경북도는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테크노파크와 참여 대학,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과정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성과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포항공과대학교는 나노융합기술원의 첨단 반도체 펌프 인프라를 활용해 실습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을 운영했다. 특성화고 학생 대상 입문 교육부터 대학생 대상 공정·분석 실무 교육, 기업 연구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인력 양성까지 단계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

에 기여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현장 맞춤형 반도체 공정과 패키징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했다. 설계와 공정, 패키징, 검사·분석 등 전주기 교육 과정을 운영해 수료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였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교육 인원 확대를 넘어 양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유입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가 다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

환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생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장비 실습 기회를 얻었고, 참여 기업들은 별도의 재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산·학 협력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와의 연계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주도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반도체 인력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경북 인재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만남지원사업으로 결혼커플 탄생

경주시는 미혼 청년남녀를 대상으로 추진한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첫 성혼 커플이 탄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성혼한 커플은 지난해 6월 경주시가 주최한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연을 맺었으며, 오는 2월 경주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미혼남녀가 취미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만남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주거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자 1인당 생활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해 총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의회, 정책 연구과제 8개 선정

인구 감소 대응 등 지역 주요 현안
도민 누구나 연구 성과 확인 가능

경남도의회가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책 연구 과제 8개를 확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정책 연구 용역 심의 위원회'를 열고 8개 연구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민호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과 도내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과 범위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살폈다.

심의 대상은 8개 의원 연구 단체가 각 1건씩 제안한 과제다. 인구 감소 대응, 교육 격차 해소,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광 자원화, 디지털 행정 혁신, 의회 발전 전략, 다문화 정책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망라했다.

각 연구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5분 자유 발언, 도정 질문 등 의정 활동에 쓰인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한다. 도민 누구나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정된 8건도 연구 종료 후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25 의원 연구 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 50여명과 도민이 직접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행사 전 과정은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서민호 위원장은 "정책 연구 용역은 도민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연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선정된 연구 과제가 완성도 높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의정 활동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지난 26일 BPA 본사에서 기술 창업 활성화와 유망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및 창업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해양·항만 창업 지원

부산기술창업투원과 업무 협약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BSIA)이 해양·항만 분야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잡았다.

BPA와 BSIA는 지난 26일 BPA 본사에서 기술 창업 활성화와 유망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식 및 창업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 ▲기술 실증 및 사

업화 연계 ▲투자 유치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공동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BPA는 항만 인프라와 현장 실증 환경을 활용한 공공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BSIA는 지역 창업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맡아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출범

행정통합 실무 가동

경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시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 현판식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체계를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난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팀을 맡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우선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재확인하고, 통합방안과 주요 내용을 대구경북 공동으로 합의·보완해 경북도의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도의회의 통합 의견 청취 절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의회의견 청취 이후에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6000m급 심해 탐사선 구경해 보세요”

부산과학관-해양과학기술원
5월 10일까지 협력특별전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협력해 해양 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협력특별전'을 오는 5월 10일까지 과학관 1층 팝업 전시 공간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심 6000m급 심해 탐사를 수행하는 최첨단 연구선 '이사부

호'와 해저 지형·지질 조사에 활용되는 수중건설로봇의 실물 모형이 공개된다.

관람객들은 영상 자료와 함께 실제 연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탐사 장비의 구조와 기능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 '심해의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망간단괴를 비롯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등 미래 전략 자원으로 주목받는 심해저 광물 3종이 실물로 전시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경남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남신보는 지난 21일 우리은행과 '2026년 우리은행 특별 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 출연 협약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경남신보에 특별 출연금 10억원을 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부산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용자 늘었다

부산도서관은 부산시 공공도서관 176곳의 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체 도서 대출자 수는 278만6794명, 대출 권수는 934만1309권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대출자 수는 1.0%, 대출 권수는 1.5% 증가한 수치다.

대출자 1인당 연간 평균 대출 권수는 약 3.4권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성인 이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도 꾸준히 이어졌다. 2025년 기준 성인 대출자는 196만1353명, 어린이 47만7927명, 청소년 10만5828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이도식 기자